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복지사회 실현은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평등이 보장되며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기실현을 성취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이 글에 동의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묻고 싶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지난 10월 20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전국사회복지인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필자가 느낀 소감은 이렇다. 이날 대회는 전국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인들이 움집한 대규모 집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전경들마저 외면하는 모습에서 웬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다. 우리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전하고자 했지만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우리들만의 무대가 된 듯해 못내 아쉽기까지 했다. 늘상


있음에도 정책의 변화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 모든 일들이 정작 당사자인 우리 사회복지인들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과연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관계를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한 어떻게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의사전달이 사람들을 서로 이간하고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어떠한 동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들이다. 바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정치과정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과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지 관심부족으로 인해 정지력 부재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필자는 앞서 이야기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그 어떤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머무를 수 없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연대감 속에서 실현되고 성취되며,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복지이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당위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치에의 관심은 가장 최소한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싶다.

막연하게 정치를 바라보지 말고 직접 부딪쳐서 쌓을 것은 쌓아나가고 깨뜨릴 것은 깨뜨려 나가는 것이 복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그 동안의 수동적 자세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복지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인의 단합된 의지표명과 함께 합의된 행동계획이 마련 되어져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혁과 정치적 세력화를 가질 수 있는 발전의 기회를 더욱 살려나가길 기원해 본다.

복지세상을 만드는 힘은 바로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자! 

정치에의 관심과 참여는 복지세상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TV를 통해 민주노총이나 쌀 협상 비준안과 관련한 농민들의 시위, 화물연대 시위,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과격하고 극단적인 시위만을 보아온 터라 마치 그렇게 해야만 시위다운 시위를 한 것 같다는 느낌에서였을 것이다. 그것이 정도가 아님을 알면서도 오늘 사회복지사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 호소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인들의 정치력에 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서울복지재단 출범 때에도 우리 사회복지계는 명백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서고 말았다. 또한 최근에도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계가 연일 반대성명을 내고



정 화 원 국회의원